



국내 자연재해리스크 관리 현황과 시사점

변혜원 연구위원

요약

■ 최근 자연재해 발생 횟수와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국내에서는 풍수해보험, 농작물보험, 풍수해 특약 등이 자연재해 리스크 전가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풍수해 관련 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함.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인식 제고 노력과 함께 관련 제도적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할 것임.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발생 횟수와 피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

- 소방방재청에 의하면 지난 7월 26~29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18,806동의 주택 침수, 74명의 인명 피해, 32,484명의 이재민이 발생함.
 - 동 기간 중 서울에 내린 강수량은 평년 연강수량의 49% 이상이었으며 3일 연속 강수량(26~28일)은 서울 관측사상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됨.
- 국내 자연재해 피해액 중 태풍과 호우로 인한 비중이 가장 큰데, 지난 10년간 국내 연평균 호우일수는 1970년대와 비교하여 약 1.4~1.6배 증가하였고 강우강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¹⁾

■ 현재 국내에서는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의 정책보험²⁾과 일반손해보험 풍수해 담보 특약 등의 민영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음.

1) 호우일수는 1시간 최대강수량 30mm, 일강수량 80mm 이상인 날의 수를 의미함. 국립기상연구소는 시간당 20mm의 비가 내리면 재해발생 확률이 50%이고, 40mm의 비가 내리면 재해발생 확률이 80%가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2) 정책보험이란 정부에서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 보상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보험을 의미함.

- 풍수해를 담보하는 대표적인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을 대상으로 한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풍수해³⁾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임.⁴⁾
 - 임의가입이며 정부가 일반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55~6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86%, 차상위 계층에게는 76%를 지원함.
- 또한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종합보험 등 일반손해보험 가입 시에 풍수재 위험을 담보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음.

〈표 1〉 국내 자연재해리스크 관련 보험

| 정책보험 | 비고 | 민영보험 | 비고 |
|---------|---------------------------|------------------|------------------------------|
| 풍수해보험 | 주택, 온실 대상 | 화재보험 풍수재 특약 | 보통약관에서는 면책이나 특약으로 보상(설해 제외) |
| 농작물재해보험 | 농작물(사과, 배 등 30개) 대상 | 주택상공종합보험 | 전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위로금으로 지급 |
| 가축재해보험 | 가축(소, 돼지 등 16마리) 대상 | 동산종합보험 풍수재 특약 | 화재보험 풍수재 특약과 동일 |
| 양식물재해보험 | 넙치(우럭, 양식시설 등으로 확대 예정) 대상 | 전위험 담보보험 | 주로 대규모 기업성 물건이 대상 |
| |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손해 특약 | 침수에 의한 차량손해액 보상 |

주: 전위험 담보보험에는 재산종합보험,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등이 있음.
 자료: 소방방재청(2011), 「2011 풍수해보험 실무」.

■ 그러나 자연재해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상품 가입률은 매우 낮아 국내 경제주체들의 풍수해 등 자연재해리스크에 대한 노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소방방재청에 의하면 2010년 말 풍수해보험 가입률⁵⁾은 12.8%인 것으로 조사됨.
- 풍수재 특약의 경우 전체 화재보험 가입건수 146만 2천여 건 중 약 0.6%에 해당하는 8천여 건만이 동 특약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FY2009 기준).⁶⁾

3)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이 이에 해당됨.
 4) 소방방재청이 사업을 주관하며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이 판매함.
 5)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콘크리트 건물, 15층 이상 아파트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대비 계약건수로 계산함. 소방방재청(2011), 「2011 풍수해보험 실무」.
 6) 풍수재, 산림풍수재, 붕괴·침강, 홍수 범람, 지진·우담수 특약을 포함한 수치임.

■ 이렇게 풍수해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률이 낮은 원인은 풍수해보험 관련 자원 부족, 리스크 관리 의식 부족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풍수해보험의 경우 1년간 책정된 정부의 보험료 지원금 90억 원이 소진되면 추가 가입자를 받을 수 없어 지원금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험가입률을 높이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 실제로 2009년, 2010년 모두 지원금이 조기 소진되었음.
- 한편 낮은 풍수재 특약 가입률은 대부분의 경제주체가 자연재해 리스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발생한 도시 내 집중호우 현상은 자연재해 리스크 노출 지역이 기존 수해지역 이외의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민영손해보험회사들의 경우에도 풍수재 특약을 판매하고는 있으나 가입률이 낮아 충분한 정보를 집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보험 관련 자원 확대,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화재보험 가입 시 자연재해 특약 의무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풍수해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예산의 확대를 통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제고시켜야 함.
- 경제주체의 리스크 관리 인식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가입 의무화를 통해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자연재해 리스크를 개인의 리스크가 아닌 사회연대적 리스크임을 인식하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⁷⁾
- 아울러 자연재해 특약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손해보험회사들이 자연재해 특약 상품 관련 정보를 집적하고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등 언더라이팅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보험회사들 간의 정보 공유 및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kiRi**

7) 다만, 노르웨이, 스페인, 프랑스의 경우에는 화재보험 가입 시에 자연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 이기형·이상우(2011. 3. 21), 「일본 대지진과 보험제도의 국내 시사점」, 『KiRi Weekly』.